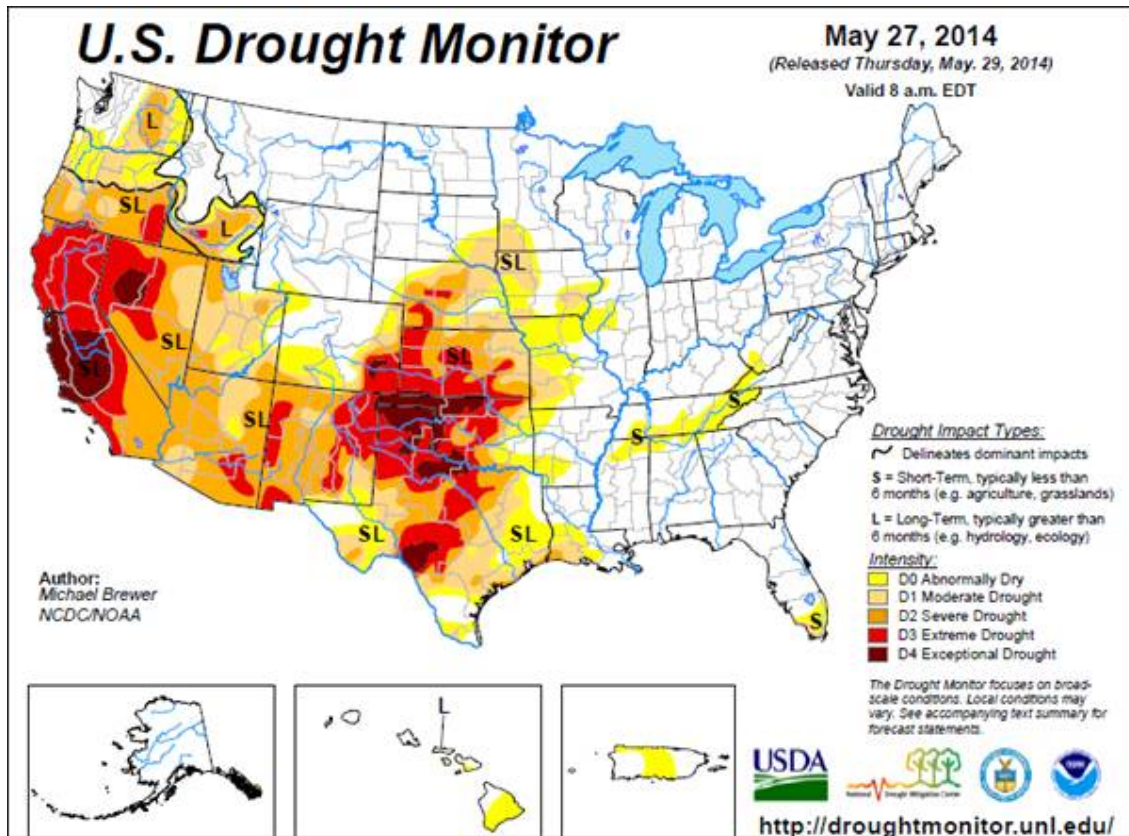


6월 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22)

□ 미국 기후 현황(05/25~05/31)



5월 마지막 주에 계속 이어진 폭우는 남쪽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이동하는 폭풍기단의 느린 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폭우는 중부, 텍사스 동쪽지역 및 플로리다 서부지역에 집중되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약 4~8인치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폭우를 동반한 기단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나머지 지역은 며칠동안 건조하고 따뜻한 기후를 보이고 있다. 서부지역은 건조하고 따스한 기후는 작물의 생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야외작업도 편리하게 수행되었다. 하지만 건조하고 따뜻한 기후는 작물에 필요로 하는 관개수량의 증대를 촉진하였고, 몇몇 강수량을 요구하는 작물들의 생장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건조한 날씨로 표토층의 수분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북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표토층의 수분 부족이 확대되고 있다. 5월 마지막 주에 내린 강우로 서부의 평원지역을 제외하고 2010년 10월 이래 여름작물에 필요한 강수량은 부족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북부지역의 평원과 중서부 지역은 때때로 내린 강수량으로 최근 식재된 여름작물의 성장과 발아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리고 서부 콘벨트의 나머지 지역은 간간히 강수량을 보였다. 서부지역의 따뜻한 기후는 겨울밀의 성숙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여름작물과 목초지의 초지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늦봄의 따뜻한 기후는 전국에 걸쳐 발생하였고, 주간 기온은 평균 기온은 10°C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특히, 남서부 지역에서 중서부 지역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된다.

□ 농업 현황 요약(05/26~06/01)

콘벨트 지역과 미국 서부 대부분 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다. 미국의 주요 옥수수 생산지역은 평년보다 기온이 6°F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북부 대평원 일부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9°F 높았다. 강수량은 작물의 성장과 성숙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미시시피 델타지역과 그 밖의 지역은 주간 강수량이 약 7.5인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작물의 성장에 불필요한 폭풍우는 텍사스 지역, 남동부 지역 및 중서부 상부지역에 평년보다 많이 나타났다.

■ 옥수수

지난주 후반까지 금년도 옥수수 파종이 약 95% 진행되었다. 작년 동기에 비해 5% 정도 앞서고 있고, 최근 5개년의 평균과 근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 전체로 약 80%의 옥수수가 6월 1일까지 발아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전년대비 9% 포인트 앞서고 있고, 지난 5개년 평균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콘 벨트 지역의 기온이 평균기온보다 상회하고 있는 것은 작물의 수확과 신규 작물의 재배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옥수수의 76%는 좋은 생육조건으로 상품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작년 동기에는 전체 옥수수의 63%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금년도 옥수수의 작황은 작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전망된다.

■ 대두

미국 전체의 대두 생산량의 78%가 6월 1일까지 식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기준 대두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3% 포인트 앞서고 있고, 지난 5개년 평균보다 약 8% 포인트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대두를 제외한 작물의 식재와 따뜻한 기후의 영향으로 대두의 재배면적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시간, 다코타 북부, 오하이오 및 위스콘신 지역은 지난주에 최소 30%의 대두 식재가 완료되었다. 국가 전체로 식재된 대두의 약 50%는 주말까지 발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것은 전년대비 21% 포인트 앞서고 있고, 지난 5년 평균 발아율보다 약 5% 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가을밀

겨울밀의 발아는 주말까지 약 79%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년대비 약 8% 포인트 앞서고 있다. 그리고 5년 평균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상태이다. 오클라호마 지역의 주중 비는 생산에 유리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텍사스의 북부 평원지역의 겨울밀은 수확이 진행되고 있다. 겨울밀 전체의 약 30%는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년대비 동기간 약 2% 포인트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쌀

국가 전체로 쌀의 발아율은 89% 정도이고, 작년 동기간과 5개년 평균과 비교하면 3% 포인트 앞서고 있다. 국가 전체로 69%의 쌀이 발육상태 및 성장 단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은 전주보다 2% 포인트 및 작년 동기보다 약 8% 포인트 높은 수치로 파악된다.

□ 세계 기후 현황(05/25~05/31)

- 유럽: 전 지역에 걸쳐 폭 넓게 내린 강수량은 중부와 북부 유럽지역에 걸쳐 겨울 작물의 생산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발칸지역의 홍수 피해 복구를 상대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일단의 스칸드나비아 지역의 고기압은 유럽지역에서 폭풍우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폭우와 천둥 등은 유럽 대륙의 부분적으로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50 mm 이상의 폭우도 내렸다. 하지만 적당히 내린 폭우로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 밀과 유채의 생산에 도움이 되었고, 여름 채소의 발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강수량이 반감지 않은 발칸지역에서는 홍수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강수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스페인 지역은 강수량이 10 mm 미만, 정도로 작아 겨울 작물의 생육환경에 유리하고 일부 작물의 수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전역에서 지난주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특별히 높은 지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예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구소련(서부): 지난주 내린 강수량은 러시아 중부와 남부지역의 더위를 상쇄하였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폭우가 내렸다. 러시아 서부지역 일부에서는 강력한 폭우가 내렸다. 고온과 햇볕이 강한 고기압을 유지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주간의 반정도 기후가 지속되었는데 러시아와 동 우크라이나 지역에 고온의 기온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주간의 기온은 밀의 개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기온을 기록하였다(30°C 이하). 그리고 주 후반에는 소규모의 강수량이 나타났는데(4~25 mm), 이것은 고온의 기후에서 보다 시원해지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겨울작물의 생산에 필요한 토양 수분 함량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반면, 25~60 mm의 강수량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지속된 중부와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과 벨라로시 및 북서부 러시아 지역은 옥수수과 기타 작물의 토양 수분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였지만, 야외 농작업과 여름작물의 식재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동아시아: 전국에 걸쳐 내린 강우는 중국의 여름작물의 생육에 이롭게 작용하였다. 반면 중국의 북부 지역은 고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헤이룽장성 등은 10~35 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강수량이 10 mm 미만인 지역은 길림, 라오닝성과 인근 지역이다. 강수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옥수수의 발아에 필요한 수분함량은 유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고온은 주간 지속되고 있고 주후반 또는 다음주에 보다 선선한 날씨가 예측되고 있다. 양쯔강 계곡 지역의 5월 초반까지 수분의 상태는 초기 식재된 작물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지만, 5월 중순 이후 식재된 작물에는 수분의 부족으로 생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중국 이외의 인접지역인 동북아 지역의 강수량도 부족하여 한국과 일본의 쌀 생산에 수분(강수량)의 부족이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호주: 서부지역에서 주간 강수량은 2~10 mm 정도로 작아서 건조하고 햇볕이 강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서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주간 계절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보였다. 이상적인 기후조건으로 겨울 작물의 파종과 초기 생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10~50 mm의 비가 내린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은 강수량으로 야외 농작업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반면 밀, 보리 그리고 카놀라의 성숙과 발아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남부 퀸즈랜드 지역의 건조하고 따뜻한 기온은 토양의 수분 손실, 증발현상이 증대되고 있다. 겨울밀의 발아에 필요한 표토층의 수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기후는 남부와 동부지역의 작물 생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평균 기온은 지역별로 3~5°C 정도 평균 보다 높고, 최고 기온은 주간 20°C 정도를 기록하였다.
- 아르헨티나: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는 여름작물의 수확 등 야외 농작업을 편리하게 하였다. 농작물 주요 생산지역인 중앙 아르헨티나의 남서부에서 북부 Salta 지역의 강수량은 비교적 작게 내렸다. 반면 산발적인 강수량이 비교적 많이 내린 지역은 아르헨티나 동부 지역(동부 Buenos, Formosa)이다. 아르헨티나의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옥수수는 식부면적에서 36%가 5월말까지 수확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수확면적은 지난주보다 5% 포인트 증가하였지만, 작년 동기 수확면적 67%보다 낮다. 대두의 수확도 작년 동기는 94%지만 올해는 78% 정도에 머물러 있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작물의 수확률이 전년대비 낮은 것은 토양중 수분의 양이 필요 이상 남아 있어 농작업 등에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브라질: 남부의 콘벨트 지역은 비가 내렸지만, 북부지역은 건조한 기후를 보였다. 그리고 주요 농작물 생산지역인 Rio Grande do Sul, Parana 및 남부 Mato Grosso do Sul 지역은 5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였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겨울밀과 주요 채소 재배지역에는 적당량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중부 브라질에서는 계절에 맞는 더욱 건조한 날씨가 발달하였으며, 옥수수와 면화에 이로움을 주는 강수량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몇 주간 기록하였다. 옥수수 생산지역(Rio Grande do Sul에서 Mato Grosso do Sul)에서는 적당한 강수량으로 작물 생산량에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간 기온은 평균 1~3°C로 평년보다 낮았다.